범사에 감사하라

말씀 : 데살로니가전서 5:12-18

요절 : 데살로니가전서 5:18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올한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아봐주셔서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예배때마다 시편이나 복음서 말씀으로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드렸는데, 올해는 데살로니가 말씀을 주셔서 좀 의아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감사는 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에 기인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30가지 감사제목을 적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할만한 그 무엇이 있는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옴과 같이 계속된다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이라면 그때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된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예배도 감사할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풍토병과 겨울의 추위로 102명 중에서 50여명이 죽었습니다. 침통하고 답답한 상황중에 있었지만 그들은 다음과 같이 감사했습니다. 첫째, 1년동안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둘째 우리죄를 사해주시고 천국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 셋째, 신앙의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 넷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 마지막으로 우리가정과 개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에 감사 오늘날 우리의 감사의 기준에 이러한 것들이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 감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때 개척된 교회입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를 개척하였고, 다음으로 들어간 곳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주로 사역하였는데 3주에 걸쳐 복음을 전했을 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않는 귀부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바울을 따랐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고, 소아시아에서 그리스반도를 거쳐 로마에 이르는 주요 군사도로이자 무역로에 위치한 항구도시였습니다. 이방 종교의 영향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며, 술을 많이 마시고 파티를 즐기는 것이 데살로니가 시민들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은 대체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겸비한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살전 1:3, 살후 1:3,4) 바울과 그의 일행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 너무 빨리 그곳을 떠나오게 되었는데 바울은 이것이 늘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교회의 사정을 알아보도록 하였고(살전3:1-3) 디모데로부터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듣고 크게 안도하고 위로를 받고 기뻐하게 되었습니다.(살전3:7-8) 바울은 이때의 기쁨과 감사함의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따라

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전형적인 당시의 편지 형식을 지니고 있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전개해 가지 않고 자유롭게 수신자들 향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2,13절을 다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기서 형제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말하고, 우리는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실라와 디모데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20:4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도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린 지도자들과 성도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말해 줍니다.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수고한다는 것은 work hard 로서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인데, 이 말은 농부가 농사짓는 것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농부가 얼마나 열심히 일할까? 새벽부터 일어나 해가 지기까지 일합니다. 농사가 씨만 뿌려놓으면 잘될까? 끊임없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잠시라도 눈을 떴고 있으면, 어느 틈에 잡풀이 자라고, 벌레가 생겨 밭을 망치시가 쉽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할 일이 많습니다. 때마다 적절한 말씀을 공급하고자 말씀을 연구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일 메시지를 준비하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이것은 교회 성도들의 영혼의 문제가 직결되었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은 늘 말씀 준비로 긴장하며, 더 공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교회의 성도들의 성장을 위해 늘 고민하고 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교회의 모든 것을 변호하며 지켜가야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생각하면 그들은 농부와 같이 늘 깨어 밤낮으로 일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주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영혼의 감독자입니다. 양들이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 교제를 잘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발견되면 대화하며 권면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알라’는 말은 그들이 하는 일의 중요성을 알고 ‘존경하라’ (respect) 하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

습니다. 유대인들이 달려들어 방해하고 그 메시지를 비방하고, 심지어 그의 목살을 잡아 끌어내 장들로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바울을 비판하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말을 잘 못한다’, ‘우리를 버리고 도망갔다’, ‘바울이 없어도 우리가 잘할 수 있다.’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지도자를 힘들게 하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성도들은 이런 교회 지도자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최고 지도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권하는 자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요회 목사님, 시니어목사님, 주니어목사님, 일대일 목사님들, 성기는 모든 종들이 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곧 그들이 하는 일의 고귀함을 알고 존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임에서도 이런 분들의 수고를 알고, 이러한 헌신의 가치를 세워주어야겠습니다. 현재 매 주일 이루고 있는 동역자모임에도 주일날 쉬고 싶는데 이런 마음을 부인하고 금쪽같은 시간을 내서 참석을 해야 합니다. 동역자 모임은 현재 우리 모임에서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이 모임에 참석하신 분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맡은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충성되게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들도 교회의 직분자들, 리더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 가운데 잘 세워주면서 화목한 7부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의 두번째 권면이 무엇입니까? 14절을 다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기서 ‘게으른 자’(헬 ataktos)는 군사용어로 대열에 머물러 있지 않은 군인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일하고 모임에 참석해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 정한 질서나 형태에서 이탈하여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르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게을러서 일까요? 자기생각이 강해서 임의로 판단하고 행동해서 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3:11절에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란 ‘참견 잘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게으른 자들은 일하며 섬기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런 저런 문제들에 참견하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 14절에 이런 자들을 향해 권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권계’는 죄의 영역에 대해서 엄하게 책망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을 좋게 타이르고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을 엄하게 책망하여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제자리를 찾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부지런히 섬기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은 확신이 없고 겁이 많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고난이나 핍박을 받고 좌절하거나 근심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말로서 위로 하고 복음 신앙에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붙들어 주다’는 것은 붙잡아 두 팔로 감싸 안고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4:3-8절에 언급한 것처럼, 죄악된 옛 습관과 씨름하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하여 흔들리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힘이 없는 자들을 동료 신자들이 강한 팔로 붙들어주고 후원해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을수양회때 사랑은 오래참는데서부터 시작한다고 배웠습니다.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요 하며 신자들의 내면에 맺히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참기만 하면 암에 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기만 하고 한을 안으로 삭히고 품는 것이 아닙니다. 한과 함께 원수 갚는 것 까지도 주님께 내려 놓아야 합니다. 오래 참아 주지만 해도 남을 자는 남습니다. 반면에 참지 못하고 화를 내면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사람은 잃게 됩니다. 오래 참고 견디는 자가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바울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신자들의 매일 매일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16-18절을 다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흔히 사람들은 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내게 무슨 장래 계획을 알고 싶어 하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뜻을 새우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우리 가운데 당신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영광을 나타내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당시 상황이 무척이나 좋아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 유대인들의 핍박속에(살전1:6) 많은 환란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자의 기쁨은 소유나 환경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와와의 깊은 관계성 속에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기쁨은 신자들로 하여금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엄청난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고 때로는 죄수의 몸으로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환경과 처지를 생각하면 깊은 한숨과 절망에 빠져서 슬피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행16:25) 바울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항상 주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모든 시간에 방석을 깔고 앉아서 주여 주여를 외치며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늘 기도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나님께 말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인생문제들을 들고 와서 해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이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듣고자 해야 합니다. 우리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순간순간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바른 기도의 태도입니다.

기도는 교회지도자들만이 하거나, 밥먹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신자들의 일상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 곳곳에서 항상 기도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엡 6:12)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벧전 5:8)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무거웠던 마음이 밝아지고 가벼워집니다. 기도할 때 평안해지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가운데 항상 기도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암투병 끝에 친오빠의 소천을 맞이한 김요한나 목자님은 인간적으로는 슬픔이 있었겠지만,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었고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2년동안 오빠를 위해서 동생과 함께 합심해서 새벽과 저녁에 기도하였고, 날마다 병원에서 기도하고, 자면서도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런 기도의 역사가 있을때 기적적으로 오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였고, 언니와 오빠네 가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깨어서 기도할때 이 가정에 원망과 불평, 절망등 어둠의 그림자가 걷혀졌습니다. 대신 생명의 에너지, 부활의 생명력으로 채워졌습니다. 이 가정에 놀라운 기도의 은혜들을 체험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정완목자님은 가을 수양회 이후 기적적으로 그의 학원이 국비지원과정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쉬지않고 기도하고 있는 사모님중보기도팀에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정완목자님은 진행되는 상황들을 볼 때 올해는 틀린것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중보기도팀에서 한 사모님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어 다시 용기를 내서 도전했는데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열시치 않으시고 들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가을수양회 이후 우리 7부에서는 금요철야기도를 이루고자 합니다. 이시간을 통해서 더욱 기도의 소원을 덧입고, 쉬지않고 기도할 수 있는 7부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은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신자들에게 항상 좋은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자들에게도 사고가 나고 실패를 하고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불행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마음이 위축됩니다. 요회 모임에서 교제하다가 한 목동님은 절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형편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고, 변화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니까 힘들다.” 어려움이 닥치고 변화될 소망조차 없다면 절망에 빠지고 더욱 감사하기가 힘들어 질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을 초월하여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는 법을 배운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신 주권과 섭리를 믿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이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합니다. 또한 그것이 당장에는 잘 이해가 안된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므로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진정한 믿음의 표시가 됩니다.

감사에 관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5,000명이나 되는 무리를 앞에 두고서도 오병이어가 있음에 감사하셨습니다. 가버나움과 고라신은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동안에 힘써 복음을 전하신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아,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하시면서 그들에게 경고하시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에 매달려 슬퍼하시기도보다도 이렇게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마11:25) 그리고 최후의 만찬 때는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감사하셨습니다. 잔을 받으사 사례하시고 떡을 가져 사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감정과 개인의 고통을 초월해 하나님께 감사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다니엘도 나라가 망했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하루 세 번 씩 했습니다. 다니엘은 참으로 위대한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1981년 흑인으로 장수 기록을 세운 찰리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130세를 살다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1850년에 노예로 태어나 130년 동안 노예로 죽도록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미국 남부, 서부를 헤매며 매맞고 굶주리고 병들어 죽을 고비를 스무번을 더 넘겼습니다. 그는 임종하기전 한 목사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흑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고통스런 노예생활도 감사합니다. 130년간 언제나 내곁에 계셔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때 이 기도를 들던 목사님은 “이런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자기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때마다 그를 분노하게

하고 좌절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더 높고 더 크십니다. 작은 머리로 하나님이 이해가 안된다고 생각하면 온전히 신뢰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을 믿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신자가 하나님께 대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엡2:3) 우리는 모두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엡2:5) 이런 우리들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죄책감과 슬픔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참 자유와 기쁨을 허락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귀한 생명도 주셨고,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마실 물과 먹을 음식과 가족과 친구들과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모든 환경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주셔서 천성을 향하여 거룩한 순례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돌보는 가장 값지고 의미 있는 사명인의 인생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공금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됩니다.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오직 감사할 이유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적극적으로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시편 103:2-5)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불평할 이유만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전10:10)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평하는 자가 되지 않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치 않는 것은 모든 죄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롬1:21).

독일의 한 우화가 있습니다. 임금이 신하 한 사람에게는 “이 나라의 잡초 종류를 되도록 많이 수집해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하에게는 “되도록 많은 종류의 꽃을 수집해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1년 후 신하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잡초 수집을 맡은 신하가 말했습니다. “임금님, 잡초가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온통 잡초로 덮여 있습니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곧이어 꽃 수집을 맡은 신하도 보고를 했습니다. “임

금님, 우리나라는 전체가 꽃동산입니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에는 원망거리 불평거리만 보입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에는 감사할 일들만 보입니다. 나는 잡초를 수집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꽃을 수집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올한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돌아보고 감사 제목들을 적어보았습니다. 올 추수감사절에도 하나님이 베푸신 구체적인 은혜들을 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올해의 감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감사, 믿음의 감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손양원목사님의 감사기도문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살해한 사람을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았으며, 1948년 아들 장례식장에서 답사를 통해 이 같은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장례식장은 이 감사의 답사로 눈물바다를 이뤘습니다.

다음은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기도문입니다.

1. 나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3.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4.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5. 예수 믿고서 그냥 죽어도 복인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6. 미국 유학 가려던 아들이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7.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8. 아들의 순교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9.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여덟 가지 진리와 신애(하나님의 사랑)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감사기도를 드린 후에 1만원을 감사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 당시 손 목사님의 월급은 고작 80원이었지만 자기 월급의 200개월 분을 드린 것입니다. 감사헌금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두 아들의 순교에 감사하며, 1만원 손양원”